

2013-0727 9급 국가직 국어 해설

월비스 고시학원 국어 이선재

*괄호 안은 출제 문항수임

지식형 총 11문항		수능형(지문 분석형) 총 9문항	
국어문법 국어규범	· 총론 - 언어의 특성 (1) · 형태론 (1) · 의미론 -의미관계 (1) · 표준 발음법 (1) · 한글맞춤법 (2) · 띄어쓰기 (1) · 공문서고치기-맞춤법 (1) · 올바른 문장 쓰기 (1)	독해	· 중심내용 · 제목 찾기 (2) · 내용일치 (4) · 내용추리 (1) · 문장배열 (1) · 전개방식 (1)
한자	· 한자성어 (2)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해설 강의는 다음 주 초에 촬영하여, 월비스 학원 게시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미론 - 단어의 의미관계>

문 1. 유의어의 종류가 다음과 같은 것은?

옥수수 - 강냉이	
① 친구 - 벗	② 보조개 - 볼우물
③ 매니저 - 관리인	④ 소금 - 염화나트륨

정답 : ②

‘옥수수’는 식물명이자 이 식물의 열매를 뜻하며, ‘강냉이’는 옥수수의 뜻하므로 두 단어의 관계는 유의관계이다. 선택지는 모두 유의관계 해당하는 단어들이지만, 이중 ‘옥수수-강냉이’처럼 고유어를 짝으로 하는 단어를 찾아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오답풀이>

- ① 친구(親舊) - 벗 : 한자어와 고유어
- ③ 매니저(manager) - 관리인 : 서구의래어와 한자어
- ④ 소금 - 염화나트륨 : 고유어와 화학명(鹽化<독>Natrium)

★선재국어 1권 123쪽, 최종특강 34번 유형 동일

<올바른 문장 쓰기>

문 2. 가장 자연스러운 표현은?

- ①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게시겠습니다.

- ② 모두 흥에 겨워 춤과 노래를 부르고 있다.
- ③ 축배를 터뜨리며 함께 우승의 기쁨을 나누었다.
- ④ 독서는 삶의 방편인 동시에 평생의 반려자이기도 하다.

정답 : ④

④의 문장은 주술 호응도 맞고, 병렬 구조도 올바르게 된 문장이다. ‘삶의 방편인 동시에 평생의 반려자’: 관형어+명사의 병렬 구조)

<오답풀이>

- ① 간접높임법의 오류이다. ‘교장 선생님의 말씀’은 간접높임의 대상이므로, ‘있다’의 간접높임인 ‘있으시다’를 써야 한다. 따라서 ‘있으시겠습니다’가 올바른 표현이다.
- ② 병렬 구조의 오류, 혹은 목적어와 서술어 호응의 오류이다.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로 써야지 올바른 문장이다.
- ③ 단어 선택의 오류이다. ‘축배’는 축하하는 뜻으로 마시는 술이나 술잔을 말하므로, ‘축배를 들다’ 등의 표현으로 써야 한다.

★선재국어 1권 119쪽 등 예문 동일

<표준 발음법>

문 3. 밑줄 친 부분이 표준 발음법에 맞는 것은?

- ① 이 책을 좀 읽게[익게].
- ② 이 발을[바출] 다 갈아야 돼.
- ③ 협의[허비]할 사항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 ④ 하늘은 맑지만[말찌만] 내 마음은 안 그래요.

정답 : ③

모음 ‘-’의 발음에 대한 문제이다. ‘-’는 첫 음절에서는 [의], 나머지 음절에서는 [의]와 [이]를 허용하며, 조사의 경우는 [에]로도 발음할 수 있다. 따라서 ‘협의’는 [허비/허비]로 발음된다.

<오답풀이>

- ① ‘읽게’는 [일게]로 발음된다. 겹받침 ‘ㄹㄱ’은 ‘ㄱ’으로 발음되지만, ‘ㄱ’으로 시작되는 어미 앞에서는 [ㄹ]로 변동된다.
- ② ‘발을’은 [바틀]로 발음된다. 받침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 이어서 발음해야 한다.
- ④ ‘맑지만’은 [막찌만]으로 발음해야 한다. 겹받침 ‘ㄹㄱ’은 ‘ㄱ’으로 발음되며, 받침소리가 다음의 안울림 예사소리와 만나 된소리되기가 일어난 경우이다.

★선재국어 1권 175쪽 등, 최종 특강 10쪽 예문적중

<총론 - 언어의 특성>

문 4. 다음에서 알 수 있는 언어 기호의 특성으로 적절한 것은?

- 언어는 문장, 단어, 형태소, 음운으로 쪼개어 나눌 수 있다. 특히 한정된 음운을 결합하여서 수많은 형태소, 단어를 만들고 무한한 문장을 만들 수 있다.
- 언어는 외부 세계를 반영할 때 있는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세계를 불연속적인 것으로 끊어서 표현한다. 실제로 무지개 색깔 사이의 경계를 찾아볼 수 없는데도 우리는 무지개 색깔이 일곱 가지라고 말한다.

- ① 추상성 ② 자의성
- ③ 분절성 ④ 역사성

정답 : ③

‘분절성’이란 연속되어 있는 것을 분절해서 표현하는 언어 기호의 특성이다. 제시문에서는 언어의 단위가 문장부터 음운까지 쪼갤 수 있다는 내용과, 외부 세계를 불연속적인 것으로 끊어서 표현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으므로, 정답은 ③이다.

<오답풀이>

- ① 추상성 : 서로 다른 사물들에서 공통적인 속성을 뽑아 개념을 형성하는 언어기호의 특성이다.
- ② 자의성 : 언어 기호의 형식인 음성과 내용인 의미가 유사성과 필연성이 없는 임의적 관계인 것을 말한다.
- ④ 역사성 :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용이나 형식이 변하는 언어기호의 특성을 말한다.

★선재국어 1권 7쪽 지문 동일, 최종 특강 1번 적중

<내용의 추리적 이해>

문 5. 괄호 안에 들어갈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힐링(Healing)은 사회적 압박과 스트레스 등으로 손상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방법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우리보다 먼저 힐링이 정착된 서구에서는 질병 치유의 대체 요법 또는 영적·심리적 치료 요법 등을 지칭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 힐링과 관련된 갖가지 상품이 유행하고 있다. 간단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수천 가지의 상품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다. 종교적 명상, 자연 요법, 운동 요법 등 다양한 형태의 힐링 상품이 존재한다. 심지어 고가의 힐링 여행이나 힐링 주택 등의 상품들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 우선 명상이나 기도 등을 통해 내면에 눈뜨고, 필라테스나 요가를 통해 육체적 건강을 회복하여 자신감을 얻는 것부터 출발할 수 있다.

- ① 힐링이 먼저 정착된 서구의 힐링 상품들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 ②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일부부터 찾는 것이 좋을 것이다.
- ③ 이러한 상품들의 값이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느껴지지는 않을 것이다.
- ④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을 알아야 할 것이다.

정답 : ②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찾기 위해서는 바로 앞이나 뒤의 문맥을 고려해야 한다. 괄호의 앞에는 국내에서도 다양한 힐링 상품이 유행하고 있음을 제시하며, 심지어 고가의 힐링 상품도 유행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그러나’라는 역접의 접속어 다음에는 이 내용

과 상반되는 것, 즉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일부러 찾자’는 내용이 가장 적절하다.

<한글맞춤법 - 띄어쓰기>

문 6.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부모님을 한 달에 두 번꼴로 찾아뵈려고 노력한다.
- ② 서류를 정리할 때 이름을 가나다순으로 정리하면 편리하다.
- ③ 이미 그 일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다.
- ④ 어느 말을 믿어야 옳은 지 모르겠다.

정답 : ④

‘지’는 시간의 경과를 나타낼 경우는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그런데 경과한 시간을 나타내지 않으면 어미로 쓰인 경우이므로, 붙여서 써야 한다. 따라서 ‘어느 말을 믿어야 옳은지 모르겠다’로 써야 한다.

<오답풀이>

- ① ‘번’은 단위를 뜻하는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꼴’은 수량을 나타내는 명사구 뒤에 붙어 그 수량만큼 해당한다는 뜻을 지닌 접미사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예) 한 명꼴 / 열 개꼴) 따라서 ‘두 번꼴로’로 쓴 것이 맞다.
- ② ‘가나다순’은 한글의 ‘가, 나, 다……’ 차례로 매기는 순서를 뜻하는 명사로, 한 단어이므로 붙여서 쓰는 것이 맞다. 같은 말로는 ‘ㄱㄴㄷ순 · ㄱㄴㄷ차례 · ㄱㄴ순 · ㄱㄴ차례 · 가나다 차례 · 기억니은디글순 · 기억니은디글차례 · 기억니은순 · 음절순(音節順)’ 등이 있다.
- ③ ‘온’은 관형사로, 다음에 오는 명사와 띄어서 쓰는 것이 맞다.

★선재국어 1권 218쪽, 최종 특강 62번 적중

<내용의 사실적 이해 - 내용일치>

문 7. 다음 글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은 것은?

오늘날 지구상에는 193종의 원숭이와 유인원이 살고 있다. 그 가운데 192종은 온몸이 털로 덮여 있고, 단 한 가지 별종이 있으니, 이른바 ‘호모 사피엔스’라고 자처하는 털 없는 원숭이가 그것이다. 지구상에서 대성공을 거둔 이 별종은 보다 고상한 욕구를 충족하느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으나, 엄연히 존재하는 기본적 욕구를 애써 무시하려고 하는 데에도 똑같이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 그는 모든 영장류들 가운데 가장 큰 두뇌를 가졌다고 자랑하지만, 두뇌뿐 아니라 성기도 가장 크다는 사실은 애써 외면하면서 이 영광을 고릴라에게 떠넘기려고 한다. 그는 무척 말이 많고 탐구적이며 번식력이 왕성한 원숭이다. 나는 동물 학자이고 털 없는 원숭이는 동물이다. 따라서 털 없는 원숭이는 내 연구 대상으로서 적격이다. ‘호모 사피엔스’는 아주 박식해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원숭이이고, 송고한 본능을 새로 얻었지만 옛날부터 갖고 있던 세속적 본능도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 이러한 오래된 충동은 수백만 년 동안 그와 함께해 왔고, 새로운 충동은 기껏해야 수천 년 전에 획득했을 뿐이다. 수백만 년 동안 진화를 거듭하면서 축적된 유산을 단번에 벗어던질 가망은 전혀 없다. 이 사실을 회피하지 말고 직면한다면, ‘호모 사피엔스’는 훨씬 느긋해지고 좀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동물학자가 이바지할 수 있는 영역이다.

바로 고치지 않으면 곧 그 자신이 나쁘게 되는 것이 마치 나무가 썩어서 못 쓰게 되는 것과 같으며, 잘못을 알고 고치기를 꺼리지 않으면 해(害)를 받지 않고 다시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으니, 저 집의 재목처럼 말끔하게 다시 쓸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나라의 정치도 이와 같다. 백성을 좀먹는 무리들을 내버려두었다가는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 나라가 위태롭게 된다. 그런 연후에 급히 바로잡으려 하면 이미 썩어 버린 재목처럼 때는 늦은 것이다. 어찌 삼가지 않겠는가.

— 이규보, 이옥설(理屋說) —

- ① 모든 일에 기초를 튼튼히 해야 한다.
- ② 청렴한 인재 선발을 통해 정치를 개혁해야 한다.
- ③ 잘못을 알게 되면 바로 고쳐 나가는 자세가 중요하다.
- ④ 훌륭한 위정자가 되기 위해서는 매사 삼가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정답 : ③

제시문은 교훈적 한문 수필의 일종인 이규보의 <이옥설>이다. 이 글은 퇴락한 행랑처를 제 때에 고치지 못했던 구체적인 일화를 먼저 제시한 뒤, 이를 통해 깨달은 교훈을 뒤에서 제시하는 귀납적 전개방식의 글이다. 이러한 종류의 글은 결론이 뒤에 제시되어 있으므로, 두 번째 단락의 ‘잘못을 알고서도 바로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중심 내용이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선제국어 3권 1174쪽, 동일 지문 및 내용

<내용의 사실적 이해 - 제목 찾기>

문 10.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언제부터인가 이곳 속초 청호동은 본래의 지명보다 ‘아바이 마을’이라는 정겨운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함경도식 먹을거리로 유명해진 곳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의 삶과 문화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동네이기도 하다. 속초의 아바이 마을은 대한민국의 실향민 집단 정착촌을 대표하는 곳이다.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1·4 후퇴 당시, 함경도에서 남쪽으로 피난 왔던 사람들이 휴전과 함께 사람이 거의 살지 않던 이곳 청호동에 정착해 살기 시작했다.

동해는 사시사철 풍부한 어종이 잡히는 고마운 곳이다. 봄 바다를 가르며 달려 도착한 곳에서 고기가 다니는 길목에 설치한 ‘어울’을 끌어올려 보니, 속초의 봄 바다가 품고 있던 가자미들이 나온다. 다른 고기는 나오다 안 나오다 하지만 이 가자미는 일 년 열두 달 꾸준히 난다. 동해를 대표하는 어종 중에 명태는 12월에서 4월, 도루묵은 10월에서 12월, 오징어는 9월에서 12월까지 주로 잡힌다. 하지만 가자미는 사철 잡히는 생선으로, 어부들 말로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자리고기’라 한다.

청호동에서 가자미식해를 담그는 광경은 이젠 낯선 일이 아니라 할 만큼 유명세를 탔다. 함경도 대표 음식인 가자미식해가 속초에서 유명하다는 것은 입맛이 정확하게 고향을 기억한다는 것과 상통한다. 속초에 새롭게 터전을 잡은 함경도 사람들은 고향 음식이 그리웠다. 가자미식해를 만들어 상에 올렸고, 이 밥상을 마주한 속초 사람들은 배타심이 아닌 호감으로 다가섰고, 또 판매를 권유하게 되면서 속초의 명물로 재탄생하게 된 것이다.

- ① 속초 자리고기의 유래
- ② 속초의 아바이 마을과 가자미식해

- ③ 아바이 마을의 밥상
- ④ 청호동 주민과 함경도 실향민의 화합

정답 : ②

1단락에서는 ‘아바이 마을’로 불리는 속초 청호동을 소개하고 있고, 2단락에서는 이 마을의 대표적인 어종으로 가자미를 제시한 뒤, 3단락에서는 이곳의 명물인 가자미식해에 대해 쓰고 있다. 따라서 전체 글의 제목으로는 ‘속초의 아바이 마을과 가자미식해’가 가장 적절하다.

<국어규범 - 한글맞춤법>

문 11. 밑줄 친 말을 잘못 고친 것은?

- ① 그는 굉장한 사업 수단으로 재산을 빠른 속도로 늘렸다.→ 늘였다.
- ② 좀 전에 제시한 것으로 의견 표명을 가름하겠습니다.→갈음
- ③ 이 사건은 의협과 용기로서 대처해야 한다.→로써
- ④ 나에 대한 너의 판단은 달랐다.→틀렸어.

정답:①

한글맞춤법 57항에서 제시된 ‘늘이다’와 ‘늘리다’의 구별 문제이다.

‘늘이다’는 본디보다 더 길게 한다는 뜻과, 선 따위를 연장하여 계속 굽는다는 뜻이 있다. ‘늘리다’는 ‘늘다’의 사동형으로, 물체의 길이나 넓이, 부피 따위가 본디보다 커지거나 능력이 나아지는 것, 시간이 실어지는 것, 살림이 넉넉해지는 것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재산을 빠른 속도로 늘리다’가 올바른 표현이므로, ①은 틀린 예문이다.

<오답풀이>

- ② ‘가름’은 쪼개거나 나누어 따로따로 되게 하는 일로, ‘가르다’에서 나온 말이다. ‘갈음’은 다른 것으로 바꾸어 대신한다는 뜻으로 ‘갈다’에서 나온 말이다. 따라서 ‘좀 전에 제시한 것으로 의견 표명을 갈음하겠다’는 표현은 올바른 문장이다.
- ③ ‘로서’는 자격을 의미하는 조사이며, ‘로써’는 수단, 재료 등을 나타내는 조사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용기로써 대처해야 한다’로 쓰는 것이 맞다.
- ④ ‘다르다’는 차이를, ‘틀리다’는 오류를 나타내는 단어이다. 따라서 ‘너의 판단은 틀렸어’로 쓰는 것이 맞다.

★선재국어 1권 232쪽 등

<어휘 · 한자 - 한자성어>

문 12. 괄호 안에 들어갈 고사 성어로 적절한 것은?

좀 과장하자면, 그 집의 겉과 속은 ()라는 말이 떠오를 정도로 달랐다.

- ① 阿鼻叫喚 ② 雲泥之差
- ③ 怒氣登天 ④ 百難之中

정답 : ②

‘운니지차(雲泥之差: 구름 운, 진흙 니, 갈 지, 어긋날 차)’는 구름과 진흙의 차이라는 뜻으로, 서로 간의 차이가 매우 심함을 이르는 말이다. ‘그 집의 겉과 속이 다르다’는 문맥과 어

올려야 하므로, 정답은 ②이다.

<오답풀이>

- ① 아비규환(阿鼻叫喚: 언덕 아, 코 비, 부르짖을 규, 부를 환) : 불교에서 아비지옥과 규환지옥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여러 사람이 비참한 지경에 빠져 울부짖는 참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② 노기등천(怒氣登天: 성낼 노, 기운 기, 오를 등, 하늘 천) : 성이 하늘을 찌를 듯이 머리 끝까지 치받쳐 있다는 뜻으로, ‘노기등천하다/노기충천하다’의 형태로 쓰인다.
- ④ 백난지중(百難之中: 일백 백, 어려울 난, 갈 지, 가운데 중) : 온갖 괴로움과 어려움을 겪는 중이라는 뜻이다.

★선재국어 4권 1544쪽

<글의 사실적 이해 - 전개 방식>

문 13. 다음 글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언젠가부터 우리 바다 속에 해파리나 불가사리와 같이 특정한 종들만이 크게 번창하고 있다는 우려의 말이 들린다. 한마디로 다양성이 크게 줄었다는 이야기다. 척박한 환경에서는 몇몇 특별한 종들만이 득세한다는 점에서 자연 생태계와 우리 사회는 닮은 것 같다. 어떤 특정 집단이나 개인들에게 앞으로 어려워질 경제 상황은 새로운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는 사회 전체로 볼 때 그다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자원과 에너지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들 몇몇 집단들만 존재하는 세계에서는 이들이 쓰다 남은 물자와 이용하지 못한 에너지는 고스란히 버려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효율성이 극히 낮기 때문이다.

다양성 확보는 사회 집단의 생존과도 무관하지 않다. 조류 독감이 발생할 때마다 해당 양계장은 물론 그 주변 양계장의 닭까지 모조리 폐사시켜야 하는 참혹한 현실을 본다. 단 한 마리 닭이 걸려도 그렇게 많은 닭들을 죽여야 하는 이유는 인공적인 교배로 인해 이들 모두가 똑같은 유전자를 가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양한 유전 형질을 확보하는 길만이 재앙의 확산을 막고 피해를 줄이는 길이다.

이처럼 다양성의 확보는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사회 안정에 중요하지만 많은 비용이 들기도 한다. 예를 들어 출산 휴가를 주고, 노약자를 배려하고, 장애인에게 보조 공학 기기와 접근성을 제공하는 것을 비롯해 다문화 가정,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행정 제도 개선 등은 결코 공짜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성 확보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미처 깨닫고 있지 못하는 넓은 이해와 사랑에 대한 기회를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제공하기 때문이다.

- ① 다양성 확보의 중요성에 대해 관점이 다른 두 주장을 대비하고 있다.
- ② 다양성 확보의 중요성에 대해 유추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 ③ 다양성이 사라진 사회를 여러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 ④ 다양성이 사라진 사회의 사례들을 나열하고 있다.

정답 : ②

유추한 유사한 사례를 들어서 동일한 결론을 추리하는 논리전개 방식이다. 제시문은 다양성이 사라진 자연 생태계를 예로 들어 우리 사회집단에서 다양성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는 글이다. 따라서 다양성 확보의 중요성에 대해 유추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는 ②의 내용이 맞다.

★최종특강 3번 유추 동일 유형 출제

<공문서 표기 · 맞춤법과 띄어쓰기>

문 14. 다음은 어느 부처 공문의 일부이다. 밑줄 친 부분을 잘못 고친 것은?

제목 : 위탁 교육 운영 계약 체결 의뢰
우리부 직원들의 정보화 및 사무자동화 능력 향상을 통해 업무 효율화에 기여하고자 '2009년 하반기 부내 정보화 교육'을 추진할 계획인 바, 이 교육의 위탁 운영을 위한 계약 체결을 아래 밝힌바와 같이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우리부→우리 부 ② 기여하고자→기여하고자
③ 계획인 바→계획인바 ④ 밝힌바와→밝힌 바와

정답 : ②

의도나 욕망을 나타내는 어미는 '-고자'가 올바른 표기이다. 따라서 '기여하고자'로 써야 한다.

<오답풀이>

- ① 부서를 의미하는 '부'는 명사이므로, 띄어서 쓰는 것이 맞다.
③ '-ㄴ바'는 앞 절의 상황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는 어미로 쓰일 때는 붙여 써야 한다. 따라서 '정보화 계획을 추진할 계획인바'로 쓰는 것이 맞다.
④ '바'가 앞에서 말한 내용을 나타내거나 일의 방법이나 방도를 나타낼 때는 의존명사이다. 이 경우는 띄어 써야 하므로, '아래 밝힌 바와 같이'로 쓰는 것이 맞다.

★선재국어 1권 218쪽 등, 최종특강 29쪽 유형 동일

<어휘 · 한자 - 한자성어>

문 15. 다음 글의 내용에 어울리는 고사 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최근 여러 기업들이 상위 5% 고객에게만 고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케팅을 벌여 소비자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에게서도 우려의 소리를 듣고 있다. 실제로 모 기업은 지난해 초 'VIP 회원'보다 상위 고객을 노린 'VVIP 회원'을 만들면서 △매년 동남아·중국 7개 지역 왕복 무료 항공권 △9개 호텔 무료 숙박 △해외 유명 골프장 그린피 무료등을 서비스로 내세웠다. 하지만 최근에 이 기업과 제휴를 맺고 있는 회사들이 비용 부담에 압박을 느끼면서 서비스 중단을 차례로 통보했다. 또 자사 부담으로 제공하고 있던 호텔 숙박권 역시 비용 축소를 위해 3월부터 서비스를 없앨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존 회원 시장이 포화 상태가 되면서 업계가 저마다 지난해 VIP 마케팅을 내세웠지만 높은 연회비로 인해 판매 실적은 저조한 반면 무료 공연을 위한 티켓 구매, 항공권 구입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부담은 너무 크다 보니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 ① 견강부회(牽強附會) ② 비육지탄(髀肉之嘆)
③ 자승자박(自繩自縛) ④ 화이부동(和而不同)

정답:③

제시문은 고급 서비스를 제공한 여러 기업들이 결국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된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자기가 한 말과 행동에 자기 자신이 오히려 곤란하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자승자박(自繩自縛)'이 문맥과 가장 어울린다.

<오답풀이>

- ① 견강부회(牽強附會 : 끌 견, 굳셀 강, 붙일 부, 모을 회) :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 붙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함.
- ② 비육지탄(髀肉之嘆 : 넓적다리 비, 고기 육, 갈 지, 탄식할 탄) : 재능을 발휘할 때를 얻지 못하여 헛되이 세월만 보내는 것을 한탄함을 이르는 말.
- ④ 화이부동(和而不同 : 화할 화, 말이을 이, 아닐 부, 같을 동) : 남과 사이 좋게 지내기는 하나 무턱대고 어울리지는 아니함.

★선재국어 4권 1527쪽, 최종특강 29쪽 동일

<내용의 사실적 이해 - 내용 일치>

문 16. 다음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재판이란 법원이 소송 사건에 대해 원고·피고의 주장을 듣고 그에 대한 법적 판단을 내리는 소송 절차를 말한다.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조선 시대에도 재판 제도가 있었다. 당시의 재판은 크게 송사(訟事)와 옥사(獄事)로 나뉘었다. 송사는 개인 간의 생활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을 위해 관청에 판결을 호소하는 것을 말하며, 옥사는 강도, 살인, 반역 등의 중대 범죄를 다스리는 일로서 적발, 수색하여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송사는 다시 옥송과 사송으로 나뉜다. 옥송은 상해 및 인격적 침해 등을 이유로 하여 원(元:원고), 척(隻:피고)간에 형벌을 요구하는 송사를 말한다. 이에 반해 사송은 원, 척 간에 재화의 소유권에 대한 확인, 양도, 변상을 위한 민사 관련 송사를 말한다.

그렇다면 당시에 이러한 송사나 옥사를 맡아 처리하는 기관은 어느 곳이었을까? 조선 시대는 입법, 사법, 행정의 권력 분립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았기에 재판관과 행정관의 구별이 없었다. 즉 독립된 사법 기관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재판은 중앙의 몇몇 기관과 지방 수령인 목사, 부사, 군수, 현령, 현감 등과 관찰사가 담당하였다.

- ① 일반적인 재판의 정의
 ② 조선 시대 송사의 종류
 ③ 조선 시대 송사와 옥사의 차이점
 ④ 조선 시대 재판관과 행정관의 역할

정답 : ④

①의 일반적인 재판의 정의는 1단락에, ②의 조선 시대 송사의 종류는 3단락에, ③의 조선 시대 송사와 옥사의 차이점은 2단락에 나와 있다. 그러나 ④의 조선 시대 재판관과 행정관의 역할은 제시문에 나와 있지 않다. 오히려, 조선 시대는 재판관과 행정관의 구별이 없었다는 내용이 4단락에 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내용은 ④이다.

<글의 사실적 이해 - 문장 순서>

문 17. 다음 글의 전개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ㄱ. 도구의 발달은 기술의 발전으로 이어져 인간은 자연 환경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 ㄴ. 그리하여 인간은 자연이 주는 혜택과 고난 속에서 자신의 의지에 따라 선택적으로 자연을 이용하고 극복하게 되었다.
- ㄷ. 인류는 지혜가 발달하면서 점차 자연의 원리를 깨닫고 새로운 도구를 만들 줄 알게 되었다.

① ㄱ-ㄷ-ㄴ-ㄹ ② ㄱ-ㄹ-ㄷ-ㄴ
③ ㄷ-ㄱ-ㄴ-ㄹ ④ ㄷ-ㄴ-ㄱ-ㄹ

ㄷ: 자연 환경을 극복한 필리핀의 예

- ③ ‘막연하다’는 갈피를 잡을 수 없게 아득하다는 의미거나, 뚜렷하지 못하고 어렵뜻하다는

의미이다. 이에 비해 ‘막역하다’는 허물이 없이 아주 친하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막역한 친구’라는 표현이 문맥상 맞다.

④ ‘게시판’으로 써야 한다. ‘게시판, 휴게실, 으레’ 등은 ‘게’로 써야 하는 대표적인 단어들이다.

★선재국어 1권 195쪽 등, 최종특강 보충자료 5쪽 동일

<글의 사실적 이해 - 내용 일치>

문 20.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회자: 이번 시간에는 ‘유명인의 사생활 보장이 국민의 알권리에 우선되어야 하는가?’를 논제로 하여 찬반 양측 토론자 각 두 분씩과 배심원들을 모시고 토론해 보겠습니다.

사회자: 먼저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가 자신들의 입장과 그 이유에 대하여 입론해 주십시오.

찬성 측 토론자 1 : 저희 측에서는 국민의 알권리보다 유명인의 사생활 보호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유명인’은 말뜻 그대로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람을 가리킵니다. 또 ‘사생활’은 개인의 사적인 생활 영역과 그와 관련된 개인적인 정보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알권리’는 국민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여기서 ‘사생활’은 ‘개인의 사적인 생활 영역’에 관계되므로, ‘알권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알권리’란 공공의 문제에 적용되는 개념 아닙니까? 유명인의 사생활은 공적 활동이 아니므로 알권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는 한 인간으로서 부여받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사생활을 보장받을 최소한의 인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사회자: 찬성 측의 입론을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반대측에서 준비해 온 입론을 듣겠습니다.

반대 측 토론자 1 : 저희는 유명인의 사생활보다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유명인’은 그 지명도를 바탕으로 사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고, ‘사생활’과 ‘알권리’는 찬성 측의 개념과 같습니다. 우리는 유명인이 유명하다는 것 자체보다도 사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명 정치인의 경우, 그가 사적으로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지가 정치 활동의 형태로 공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 또한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까? 그가 감추고 싶은 비밀이라도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국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 ① 사회자가 토론자들의 발언 순서를 통제하고 있다.
- ② 사회자가 논제에 대한 자신의 찬반 여부를 표명하고 있다.
- ③ 찬성 측과 반대 측 모두 논제에 대한 상대방의 입장을 수용하고 있다.
- ④ 찬성 측은 입론 단계에서 논제와 관련된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정답 : ①

제시문은 ‘유명인의 사생활 보장과 국민의 알 권리’라는 대립적 논제에 대해 찬반으로 갈려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글이다. 사회자는 논제를 밝히고, 찬반 양측이 순서대로 발언할 수 있도록 순서를 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오답풀이>

② 사회자가 논제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내용은 없다.

③ 찬반의 입장이 뚜렷이 갈리고 있지, 상대방의 입장을 수용하며 합의를 이끌어내고 있지는 않다.